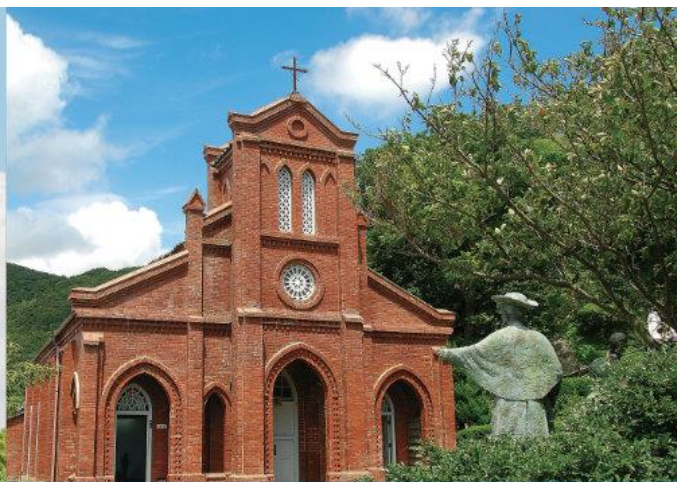




The Official GOTO Travel Guide

Visit GOTO City

나가사키 시내 관광 & 처음 만나는 고토(후쿠에 섬) 섬 일주 3박 4일



나가사키시의 평화공원과 구라바엔(글러버 정원), 성당을 돌아본 뒤 고토로 출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다카하마 해수욕장, 후쿠에 섬의 상징인 오니다케 산, 고토를 대표하는 풍경인 오세자키 등대 그리고 그 주변 명소를 소개합니다. 고토를 처음 관광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며 섬을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3박 4일

대중교통, 제트포일, 차, 도보

나가사키 시내·후쿠에섬

• START

1

[1일째] 평화공원 산책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공원



공원에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평화기념상과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어 방문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피폭의 참상과 그 후 부흥의 역사를 전시하는 원폭자료관에서는 평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보 약 10분

2

[1일째] 가톨릭 우라카미 교회(우라카미 천주당)

고난을 이겨내고 축조된 성당



기리시탄(천주교 신자) 탄압에 시달린 신도들이 세운 성당. 원자폭탄 투하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 재건되었습니다. 원폭의 폭풍을 견뎌낸 하나 남은 삼종 기도 종이 지금도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대주교구의 허가를 받아 게재했습니다.



노면전차 헤이와코엔 정류장에서 신치추카가이 정류장까지 전차로 약 20분

3

[런치] 나가사키 신치 중화가

일본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



아름다운 붉은 문과 랜턴이 거리를 물들이며 약 40개의 중화요리 전문점과 기념품 가게가 모여 있는 번화한 지역입니다. 본격적인 중화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나가사키 명물 '짬뽕'과 '사라우동'이 인기입니다. 음력 설에는 화려한 랜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노면전차 신치추카가이 정류장에서 오우라텐슈도 정류장까지 전차로 약 7분, 하차 후 도보 약 5분

4

[1일째] 오우라 천주당

구라바도리 거리에 면해 축조된 성당



중세 유럽 건축을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현존하는 성당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 내 스테인드글라스의 일부는 1879년 개축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의 구성 자산 중 하나입니다.

※사진은 대주교구의 허가를 받아 게재했습니다.



도보 약 5분

[1일째] 구라바엔 (글러버 정원)

아름다운 정원과 역사적인 건물이 모여 있는 관광지



구 글러버 주택 등 9개의 전통적 건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역사적인 서양풍 건물 몇 채가 정원에 들어서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은 나가사키에서 손꼽히는 인기 명소입니다. 정원에서는 고풍스러운 드레스도 대여하고 있으니 드레스를 입고 산책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노면전차 오우라텐슈도 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7분, 승차 후 신치추카가이 정류장에서 환승해 나가사키에키마에 정류장까지 전차로 약 25분

[숙박]나가사키역 주변



1

[2일째] 나가사키항(7:40)



제트포일로 약 85분

2

[2일째] 후쿠에항(9:05)



도보 약 12분

[2일째]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은 후쿠에시 출범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현재 2004년부터 고토시에 통합). 구 이시다성의 성내에서 1986년부터 건설 작업이 시작되어 1989년 11월 12일 개관하였습니다. 이 자료관은 고토의 문화적 유산, 역사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해 소개합니다.



도보 약 10분

[2일째] 후쿠에성

일본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해 있는 성



이시다성의 축조는 고토의 30대 영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건설 작업은 1849년에 시작되어 15년 후인 1863년에 완료되었는데, 공사에는 50,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성으로 당시 3면이 직접 바다에 접한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현재는 과거 성벽 내부에 문화 센터, 고등학교, 고토 관광 역사 자료관과 고토시의 공공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보 약 6분

[2일째] 고토씨 정원 은전야시키 신지가이케 연못

국가지정명승지. 2년의 세월을 거쳐 지어진 고토가문의 숨겨진 저택.



교토의 승려가 건축한 정원은 교토 금각사의 동근 연못을 본떠 만든 것으로 깊은 정취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마음 심(心)자를 그대로 인용한 '신지가이케 연못'과 수령 800년 이상이라 전해지는 녹나무,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보 약 6분

[2일째] 부케야시키도리/후쿠에 부케야시키도리 후루사토관

부케야시키도리 안에 있는 관광 거점 시설



과거 중급 무사 계급의 저택이 들어서 있던 거리인 부케야시키도리에는 지금도 높은 돌담과 야쿠이몬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부케야시키도리 후루사토관은 그 부케야시키도리에 있던 후쿠에 무가 저택 터를 활용해 만든 관광 거점 시설입니다.

후쿠에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코너 외에, 바라몬 연 그림 그리기, 스테인드글라스 열쇠고리 만들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본식 방이 있으며, 카페 코너에서는 고토의 명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7

[런치] 후쿠에 지구



차로 약 10분

8

[2일째] 묘조인 절(일본유산)



묘조인 절은 수 세대에 걸쳐 고토 가문의 봉건 영주들이 참배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본당은 1778년 28대 고토 영주인 고토 모리유키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고토시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원인 묘조인 절은 수 세대에 걸쳐 고토 가문의 봉건 영주들이 참배 장소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본당은 1778년 28대 고토 영주인 고토 모리유키에 의해 완공되었습니다. 묘조인 절은 고토 진연종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본당 천장의 회화는 유명한 화가인 가노 에이토쿠의 제자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다고 알려진 묘조인 절은 가마쿠라와 무로마치(12세기 중반~16세기 중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불교 유물과 불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차로 약 15분

[2일째] 오니다케 산

화산루(펠레의 눈물)를 산출한 후쿠에지마 섬(福江島)의 상징.



고토시(五島市)의 상징이 된 화산입니다. 해발 315m에 전면이 잔디로 뒤덮힌 아름다운 유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등성을 타고 걷는 트레킹은 가까이서 후쿠에의 시가지가, 멀리는 가미고토(上五島)의 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여름에는 중나리꽃, 가을에는 용담꽃 등의 식물과 만날 수 있습니다.



차로 약 5분

[2일째] 아분제 비지터 센터

지오파크 지역의 거점 시설



사이카이 국립공원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구주쿠시마 섬부터 이키쓰키시마 섬, 히라도지마 섬 그리고 고토 열도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4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국립공원 내 비지터 센터이자 고토 열도 지오파크 지역의 거점 시설로서 영상, 디오라마, 패널 등을 통해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관찰회나 자연 소재를 이용한 공작 등의 강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영어 번역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보 약 1분

[2일째] 아분제 용암 해안

오니화산에서 유출한 용암으로 만들어진 멋진 해안선



까맣고 울퉁불퉁한 용암이 복잡하게 뒤엉킨 여기 아분제 용암 해안은 약 5만년전에 오나다케(큰 산) 근처에 있는 화산 분화로 흘러나온 용암으로 주변 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면 상승으로 인해 지금 현재 해안 경관이 되었습니다.

해안선은 동서로 약7km 이어지고, 아분제 주차장과 동주차장 간에 700m 산책길이나 전망대가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산책하실 때에는 그 계절마다 핀 꽃이나 나무 등 풍경을 즐기실 수 있고 또 용암 해안에서 아카섬, 오우섬, 쿠로섬 등 많은 섬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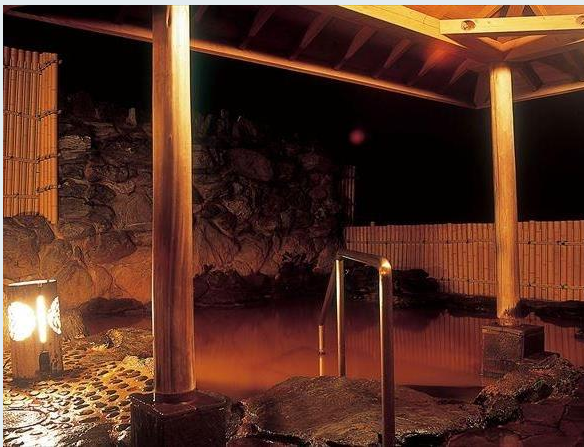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맑은 날 등 여러 조건이 맞으면, 멀리에 있는 섬이 떠 보이는 "우키지마 현상"(浮島現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차로 약 10분

[숙박]오니다케 온천(고토 콘카나 왕국 내)

숙박객 한정으로 즐길 수 있는 천연 온천



오니다케 산기슭 '고토 콘카나 왕국' 내에 있는 오니다케 온천. 노천탕과 실내탕 외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갈색의 불투명한 온천수가 특징으로 몸이 따뜻해진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차로 약 30분

1

[3일째] 미즈노우라교회

로마네스크, 고딕, 일본 건축 기술이 섞인 아름다운 백악의 교회



미즈노우라 신도들은 고토와 오오무라반(藩) 정책에 따라서 1797년 소토메(오오노, 마키노, 가미노우라 지역)에 남자 5명과 그 가족들의 이주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1880년에 첫 교회가 건축되었지만 노후화 때문에 안쪽 독을 깎아서 넓히고, 1938년 데츠카와 요스케(鉄川 与助) 설계,시공으로 우미한 현 목조 교회로 개축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일본 건축 기술이 섞인 백악의 아름다운 교회로, 목조 교회당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맑은 하늘과 높은 첨탑은 마치 그림같은 풍경입니다.

돈대에는 요한 고토(고토 출신인 26성인 중 한명)의 동상이나 탄압 시대의 감옥터도 남아 있습니다.



차로 약 20분

2

[3일째] 다카하마 해수욕장

천연해수욕장으로는 일본 제일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백사장. 멀리까지 맑은 해수면과 맑은 바닷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토 열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녹음에 둘러싸인 은백색의 백사장과 맑은 바다로 잘 알려진 나가사키현 신 관광 100선, 일본의 물가 100선, 일본의 길 100선, 일본의 해수욕장 88선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해수욕장으로써의 환경과 비치하우스 등도 잘 정비되어 있어, 섬 내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방문하는 행락객들도 성황입니다.

근처의 교란칸논전망소(어람관음전망소/魚籃観音展望所)에서 보이는 다카하마 해수욕장의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3

[3일째] NEW 판도라

곰치 요리가 명물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생산자분들을 알 수 있는, 로컬 푸드를 지향하는 음식점. 곰치 요리가 명물이지만 대하 튀김도 매력적입니다.



차로 약 25분

4

[3일째] 다이호지 절(일본유산)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무른 이후 '서일본의 고야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절.



다이호지 절은 다이호 원년인 701년에 지토 천황의 요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세기 후인 806년 명승 구카이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언종의 교리를 처음으로 설파했습니다. 이 절에는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37)의 열반도 몇 점, 청동으로 만든 종, 유명한 에도 시대 예술가이자 조각가인 히다리 진고로의 원숭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로 약 10분

5

[3일째] 이모치우라 성당과 루르드

현지 신도에게 부탁해 모은 돌로 만든 일본 최초의 루르드 동굴.



이모치우라의 이야기는 오무라번의 잠복 기리시탄이 소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모치우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1891년 바티칸에 루르드 동굴의 레플리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고토에서 가톨릭 신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던 페뤼 신부가 현지 신도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돌을 모아 1899년 일본 최초의 루르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차로 약 10분

6

[3일째] 오세자키 등대

우뚛 솟은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백아의 등대. 그 너머에는 동중국해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일본등대 50선 중 한 곳.



1879년 첫 점등을 시작한 등대로 현재의 등대는 1971년 리모델링하여 광달거리가 약 22km에 이르는 일본 굴지의 등대입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백아의 등대와 동중국해에 저무는 석양은 참으로 절경입니다.

*등대와 산책로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전망대에 있는 화장실을 미리 이용해주세요.

*산책로 곳곳에 경사와 나뭇잎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 약 60분

7

[숙박] 후쿠에 지구



차로 약 25분

1

[4일째] 시로타케 전망소

기시쿠의 거리 풍경부터 고토의 섬들까지 한눈에 조망



산책로를 따라 올라간 제1 시로타케 전망소에서는 후쿠에 섬 북부와 주변 섬들을 360도 대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차로 약 10분

2

[4일째] 교가사키공원

수평선에 지는 감동적인 석양



사이카이국립공원내에 위치하여, 건당사가 들린 곳으로 역사 깊고 또

자연을 실컷 즐길 수 있는 레저공원입니다.

수 많은 섬과 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 섬들을 붉게 물들여가며 사이카이 수평선에 지는 석양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차로 약 15분

3

[4일째] 고토렛토 주조

쇼추 공장 견학 & 비교 시음 체험



고토렛토 주조에서는 고토산 고구마, 쌀, 보리 100%를 원료로 하여 고토를 대표하는 쇼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쇼추 제조에는 누룩 만들기부터 숙성 등 다양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견학 체험에서는 직원이 각 공정의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견학 후에는 고토렛토 주조에서 만든 쇼추 3종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시음은 20세 이상 한정)

쇼추는 공장에 병설된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견학할 수 있는 공정이 다릅니다. 또한 7~8월은 제조하지 않으므로 일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도보 약 1분

4

[런치] 겐토시(견당사) 후루사토관



이 시설은 당나라로 가는 일본 사절단에서의 고토의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특징입니다. 기념품점은 물론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어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차로 약 10분

5

[4일째] 가이쓰 성당

흰 벽이 아름다운 성당



신도들이 세운 목조 성당. 이제는 상징이 된 지붕의 작은 첨탑은 노후화로 증개축할 때 설치되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성당 내부로 들어오는 빨강, 파랑, 초록의 빛의 예술이 온기 있는 공간을 물들입니다.



차로 약 40분

6

[4일째] 도자키 성당

고토의 상징적인 성당.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 금지령을 해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출신의 두 선교사 프레노 신부와 마르망 신부가 지역 기독교 공동체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 고토로 파견되었습니다. 마르망 신부는 1879년 고토에 최초의 목재 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도자키 성당은 1908년 마르망과 프레노 신부의 뒤를 이은 페뤼 신부의 지도하에 적벽돌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일부 자재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오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전형적인 스테인드글라스와 리브 볼트 천장 구조로, 목조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도자키에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서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4년에 나가사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차로 약 15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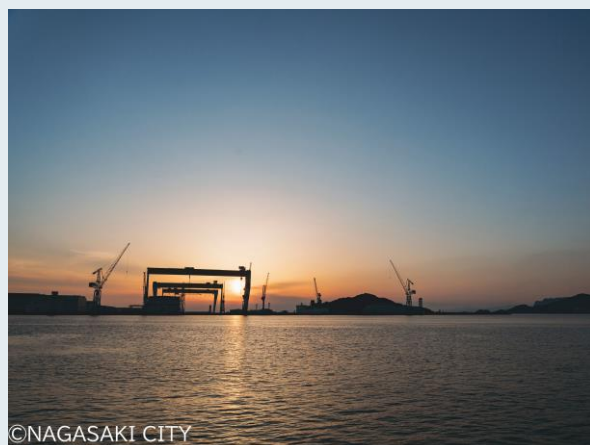
[4일째] 후쿠에항(16:30)



제트포일로 약 85분

8

[4일째] 나가사키항(18:15)



©NAGASAKI CITY

• GOAL